

문 6: 하나님의 신격에 몇위가 계신가?

답 6: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 이시다. 본체(본질)와 권능과 영광은 동등 이시다.

성경적 근거: 창세기 1:26; 고린도후서, 13:13; 요한일서 5:7; 마태복음 3:16-17, 28:19;
고린도전서 8:4-6; 요한복음 1:1, 18, 4:18; 요한복음 4:18; 사도행전 5:3-4; 히브리서 1:3

질문 1: 하나님의 신격 (Godhead)에는 몇 위(person)가 계신가?

질문 2: 하나님의 신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 3: 성부는 누구신가?

질문 4: 성자는 누구신가?

질문 5: 성령은 누구신가?

질문 6: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세 분이신가?

질문 7: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본체와 권능과 영광은 어떠한 것인가?

질문 8: 삼위는 구별될수 있는가?

질문 9: 하나님은 한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칭하는가?

질문 10: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가?

질문 11: 성경은 삼위일체론을 가르치고 있는가?

질문 12: 구약성경은 삼위일체론을 가르치고 있는가?

질문 13: 신약성경은 삼위일체론을 가르치고 있는가?

질문 14: 삼위일체론이 이해가 되는가? 설명해보라.

질문 15: 삼위일체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수 있나?

설명:

문답 6 이 논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론이라 부른다. 삼위일체론이 성경적으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내용이 함께 존재해야한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둘째,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셋째, 이 삼위는 본질, 권능,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둘째, 삼위의 각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다.

문답 5에서는 “여호와와 하나님 되심”을 배웠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참 신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 삼위일체론은 유일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성경의 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삼위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일 뿐이다. 이 용어가 성경에 있고, 없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혹,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삼위일체론은 사람의 머리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삼위일체론을 진리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결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말씀들과 사실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론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삼위일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삼위일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용지물로 된다는 것이다. 삼위일체론이 없이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헛된 것이며, 둘째,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한 대속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셋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도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넷째, 예수님은 그저 또 다른 한 인간으로써 우리가 그를 예배한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다섯째,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증거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삼위일체론을 2000 년동안 수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과 이단종교와 타 종교에서 수없이 반박해 왔으나 실패했다. 또, 성경의 여러 교리들 가운데 삼위일체론은 가장 확고한 교리로 손꼽히고 있으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성경의 진리로 우뚝서있는 것이다. 성경의 증거를 당해낼 어떤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삼위일체론을 설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명 할 수 있고, 없고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이 충분한 설명이다. 사람들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신들의 머리로써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 하는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성경의 증거를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들이 삼위일체론 외에 다른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문답 2,3 은 중요한 교리이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착각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참 신이 될수가 없다. 사람은 다른 사람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않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한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8-9)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분명하게 묘사되었고,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만, 성경전체를 통해 삼위의 역사하심은 조금씩 다르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활약이 삼위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땅에 계시는 동안은 성자 하나님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천지를 창조하실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 (창세기 1:1-2; 요한복음 1:1-4) 지금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는 영원토록 삼위일체로 존재하실것이다.

주어진 성경구절들은 모두 신약성경에서 나왔는데, 구약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구약의 성경구절을 읽고 묵상해보는 것이 좋다.

창 1: 26; 3:22; 11:7 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를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한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것이다.

시편 45:6-7 에서는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란 표현으로 하나님의 삼위를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1:8 에서는 시편 45:6-7 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시편의 내용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를 “하나님”으로 칭했다.

시편 110:1 역시 그 표현이 삼위의 표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2:41-46 에서 시편 110:1 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다.

이사야 63:10 에서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라고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삼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사야 48:16 또한 성령을 증거하고 있다.

말라기 3:1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구하는바 주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가 구하는바 주”가 구별되는 위임을 말해주고 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 이미 공부한바와 같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은 서로가 하나됨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 성경 전체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증거는 확실한 것이다.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론을 부인한다. 그들은 여호와 (즉, 성부 하나님)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인정하고 그를 피조물로만 생각하고 있어 그의 신성을 부인한다.

주위에 많은 이단 교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삼위일체론을 잘못 설명하며 이해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삼위일체론의 분명한 이해와 인식은 절대적이다. 나의 생각으로 이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삼위일체론의 약점이 될수없다. 이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부분이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신명기 29:29)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19 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한번 확실하게 알도록하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기록되어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다. 이 부분이 영어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교리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비록 이해가 안된다고 말할수는 있어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도 구원에 동참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는 구원에 이룰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22:18-19 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 것을 배웠다.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 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2-3.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한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세 인격들이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다. 아버지께서는 누구로부터 나지도 혹은 나오지도 않으시며;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며;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